

책이 펼친 올해의 키워드,

신화



디지털 시대의 묘약, 그리고 신화 神話

●
사리분별력이 뛰어나고 자기주장이 강하며 쿨(cool)하기로 소문난 디지털 시대 주민들이 신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기울이다 못해 이젠 꽃과 나비, 온갖 자연들과 대화하기를 소원한다. 이유를 따지기 전에 알아되어야 할 것은 이미 작금의 대세는 신화神話라는 것. 증거는 넘쳐난다. 21세기 최고작으로 손꼽혔던 반지의 제왕, 트로이, 해리포터 시리즈 등 문화면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문화상품들의 모태는 바로 신화였다.

신화학자 정재서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는 “이성과 합리로 점철된 첨단 기술문명 시대의 신화바람은 과학문명에 대한 염증에서부터 반사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을 맹신하던 인간은 이제 그 한계를 깨달았고, 잃어버렸던 감성, 자연과의 유대를 되찾고자 신화로 귀환한다. 꽃과 새, 돌과 대화하는 신화적 공간에서 인간은 자신의 본질, 원초적 모습과 만난다. 정 교수에 따르면 각종 유전학이 발전하는 가운데 자기정체성을 고민한 인간이 자신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신화를 찾게 되는 심리도 분명 있을 거라는 해석이다.

신화는 이중적이다. 염증을 치유하는 묘약이 과거의 산물이라 하여 신화바람을 과거로의 역행이라 설명하는 건 성급하다. 신화는 첨단 문명을 걷는 우리에게 이중의 만족감을 준다. 원시시대로의 복귀가 메마른 인간의 심성과 감성을 회복시켜준다면 한편으론 이미지, 첨단 테크놀로지 등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디지털 문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키워드를 던져준다.

한국외대 철학과 강사 장영란 교수는 “신화는 우리에게 일상적이고 친숙한 이야기로 보편적이면서도 초월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한다. 신화가 펼쳐놓는 ‘초월적인 세계’란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상의 공간으로 이미지와 웹으로 구축된 디지털 시대의 공간과 유사하다. 게임, 영화 등 문화산업 콘텐츠 대부분이 가상공간을 배경으로 하니 인간에게 필요한 건 상상력이다. 신화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오늘날의 문화를 제대로 읽고 콘텐츠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2004년 출판계 키워드로 등장한 신화, 그것도 ‘동양신화 바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고자 하는 보다 적극적인 시도다. 동양신화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역설하고 있는 정재서 교수는 “신화 자체가 상상력의 원천이고 본질을 찾아가는 여행인데, 상상력조차 그리스, 로마 등 서양 것을 접하며 키워간다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다. 그나마 이제라도 우리 신화를 보면서 가능성을 찾자는 반성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화 열풍 시대. 신화를 읽는 사람들은 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나로 귀환한다. 과학문명에 대한 맹신을 떨치고 희망과 가능성으로서 다시 나를 찾고 있는 것이다.

글 | 김청연기자

신화를 발견해낸 책들 - “그리스, 로마 신화만 신화나?”

●
“제우스는 알면서 치우, 강태공, 아더왕을 모르다니

요!” 2000년부터 출판,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 각종 문화 도구의 시선이 그리스, 로마 신들에게로 향해 있었으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다른 신들이 노할 때도 됐다. 2004년은 이렇듯 미지의 영역 속에 묻혀 있던 동, 서양의 여러 신들이 출판계에 당당히 얼굴을 내밀었던 한해다.

올해 새롭게 출간한 신화서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것은 단연 동양신화다. 초순에 출간된 **《손종흠 교수의 다시읽는 한국신화》**(손종흠, 휴먼앤북스)를 필두로 약 3권의 책이 매체와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중순에 출간된 **《정재서 교수의 이야기 중국신화》**(정재서, 황금부엉이)는 11월 현재 약 3만 부 판매를 기록하면서 동양신화서치고 매우 긍정적인 독자 반응을 얻고 있는 중이다.

이 책은 특히 깊이와 다양성을 모두 충족해 기존 신화서의 한계를 극복한다. 저자인 신화학자 정재서 씨는 “신화가 상상력의 보고라고 했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만 본다는 것은 상상력의 원천도 편식하는 것”이라며 서양문화를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서라도 신화서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동양신화는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한국인으로서 정체는 무엇인지’ 나의 근본을 찾게 해주는 키워드로서 의미가 깊다.

이후 출간된 **《김선자의 중국신화 이야기》**(김선자, 아카넷)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민간 전승된 자료를 수집, 객관적으로 중국신화를 써내려갔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또한 가장 최근 출간된 신동훈 교수의 **《살아 있는 우리신화》**(신동훈, 한겨레신문사)는 그동안 어린이책, 뮤지컬 등에서만 선보였던 우리 신화를 본격적으로 소개한다. 건국대 신동훈 교수는 “무엇보다도 원본의 순수성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다”고 밝히면서 글자도 깨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입으로 전해진 우리 신화의 야생성을 오히려 전하고 싶었다는 뜻을 밝힌다.

깊이와 재미를 담보한 동양신화서가 올해 꾸준

히 출간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 열풍이 가신 후 ‘우리 자신의 것’에 목말라 했던 독자들의 잠재 욕구가 폭발했다는 설명들이 많다. 또한 서양문화 속에 길들여진 우리가 편식을 그만두고 보다 균형 있는 문화읽기를 시도할 때가 되었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황금부엉이 장석희 부장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문화에 대한 근원으로서 신화가 소개되지 않았다는 걸 독자들도 눈치 챌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실 우리 문화 속에서 동양 신화적 요소들은 조금씩이나마 얼굴을 내밀었다. 정재서 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월드컵 때 거리로 나온 붉은 악마의 로고가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동이계 종족 ‘치우’였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한편 그리스, 로마 신화에 편중되는 탓에 상대적으로 밀려났던 주요 서양신화들도 조금씩 기지개를 펴는 추세다. 시인 김정란 교수(상지대)가 번역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아더왕 이야기》**(장 마르칼, 4권, 아웃사이드) 그리스, 로마, 북유럽 신화와 함께 유럽을 대표하는 신화로 인정받는 켈트 신화를 본격적으로 소개한다. 이 밖에도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의 **《신화와 함께 하는 삶》**(조지프 캠벨, 한숲출판사) **《네가 바로 그것이다》**(조지프 캠벨, 해바라기)를 비롯, **《에다 게르만 민족의 신화 영웅전설 생활의 지혜》**(조지프 캠벨, 서울대학교출판부) 등이 출간된 상태다.

아카넷의 정연재 출판팀장은 “올해 추세로 보면 내년에는 더 다양한 신화서가 출간될 것”이라며 “신화의 다양화 바람이 불수록 각 문화권 신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학자들과 전공자가 더 많이 나와줘야 할 것 같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한편 출판계 일각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전 독자층을 수용한 것처럼 동양신화, 그리고 서양의 여타 다른 신화들도 넓은 독자층을 수용할 수 있는 확장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는 추세다. **▶**

〈정〉

